

사 설

흔들리는 대학 승가교육

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조계종의 3대 종책사업의 첫 번째도 승가교육이며, 승가교육 없이는 역경과 포교가 가능할 수 없다.

그러나 승가교육환경은 아직도 열악하다. 사실 조계종의 기본교육기관인 전통 강원과 중앙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을 보면 출가 사미·사미니의 의무교육시설과 체계가 허술하고 산만한 현실을 직감할 수 있다. 전통 강원의 규율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수행적 풍토나 대중 습의에 제재가 있지만, 중앙승가대와 동국대는 수행관입방이 의무적이지 않고, 출일이 자재한 까닭에 수행적 정서가 산만하고, 정규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중앙승가대학이 2002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50%밖에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사태를 빚었다. 미달 사태는 5년 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현상이지만 해마다 미달의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입시 응시에서 동국대학교의 승려 응시자도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미달이라는 것이다. 또, 세

곳을 교차지원 할 수 있는 현행 입시 제도로 볼 때 신입생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종단과 학교 당국에서는 현 문제를 숙의하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자.

첫째, 출가 연령이 2001년 현재 평균 32세를 상회하고 있다. 대졸자의 출가가 늘어남에 따라 전통 강원이나 스님의 통계 수치를 감안해 대학입학 정원의 숫자를 조정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수행 습의의 문제다. 중앙승가대나 동국대의 승려생활관 규정이 엄격하지 않아 은사들이 상좌들의 대학 보내기를 꺼려한다.

셋째, 승려 학원의 특별전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반 학생과 동등한 기준으로 수능·논술 면접의 방법으로 선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넷째, 승가대학원의 설립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통 강원을 나오거나 기본교육을 마친 스님이 수행·연구할 수 있는 대학원 대학의 교육제도가 미래 승가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명상통한 청소년 심성 계발

조계종 파라미터청소년협회 지회인 부산파라미터가 개설중인 명상전문지도자 과정이 부산시 교육청으로부터 연수 점수를 인정하는 연수과정으로 채택되었다는 낭보다. 명상전문지도자과정에서 6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게 되면 교사들에게 4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교사들이 명상을 통해 학생들의 심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쾌거가 아닐 수 없다.

명상을 통해 자아를 되돌아보고 존재의 근원과 만물의 움직임을 통찰했던 것은 불교의 오랜 전통이다. 동양적인 문화의 전형 중의 하나가 명상이란 점에서 새로운 교육의 시도이자 가장 동양적인 문화형태를 익힐 수 있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나아가 갈수록 흥포화, 즉물화, 이기화되어 가고 있는 뿌리없는 청소년 문화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믿는다.

흔히 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이라 표현한다. 시간의 흐름은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책임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말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계육성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불교계도 마찬가지다. 뿌리지도 않고 거를 수는 없는 것이다.

기독교나 천주교 등은 이런 점에서 불교보다는 현실적이고 적극적이다. 청소년문제를 연구하는 청소년연구원을 설립하여 청소년 오락문화나 연수 프로그램,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청소년 정책 내지 문화의 중심에 학교나 교사들이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물론 불교계에도 불교교화연합회, 불교파라미터 등 청소년 단체들이 있다. 그곳에서 범종단적인 차원의 청소년 활동 및 정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직접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연수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계의 역사와 사회적 위상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불교적 가치나 전통을 담은 청소년문화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리라 본다.

중앙승가대 또 미달

내년 신입생 모집 정원 절반만 지원 동국대도 불교학부등 승려전형 미달

중앙승가대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또다시 미달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역경학과와 경우 단 한 명의 지원자밖에 없어 폐과위기에 놓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3일 마감된 중앙승가대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지원자는 모두 61명으로, 전체 정원 120명의 절반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각 30명 정원인 화과별 지원 현황을 보면 불교학과 25명, 사회복지학과 24명, 포교사회학과 11명, 역경학과 1명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5년간의 현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98년도 신입생 모집에는 71명, 99년 52명, 2000년 76명이었고 올해 신입생 역시 72명이 그쳤었다. 4년제 정규

대학으로 승격된 97년 이후 매년 정원의 50~60% 밖에 채우지 못한 전례가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역경학과 지원자가 단 1명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지원자가 매년 5~11명에 그치는 것은, 이번처럼 지원자가 적은 경우는 전례가 없었다. 내년 2월 추가모집에서 최소정원(5명)에 미달할 경우 교육부 규정에 따라 전공과목은 자동 폐지된다.

교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건실한 학풍 결여, 스님들의 강연 선호 경향, 조계종 교육체계 문제, 홍보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아우러진 결과로 진단하고 있다.

학교 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가 외부로 표출돼 연학분위기가 조성

돼 있지 않은데다, 강원과 동국대가 중앙승가대와 함께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 돼 있어 중앙승가대를 고집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 기본교육기관 입교 대상자의 은사님들이 강원을 선호하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힌다.

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종석스님은 "역경학과와 경우 학부과정으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마다 지원자가 줄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학풍을 개선하고 종단교육체계 재검토하는 등 학교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도 서울캠퍼스의 경우 불교학부 승려특별전형(정원 18명)에서 12명만이 지원했으며, 경주캠퍼스는 불교문화대학(정원 20명)에 13명, 유아교육과(정원 6명)에 3명만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명우 기자 mwihan@buddhapia.com

성보박물관 공식기구 추진

조계종 전국실무자 간담회서 밝혀 새해초 관련법 개정...감독강화 기대

그 동안 비공식 기구에 머물렀던 성보박물관의 공식 행정기구화가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19~20일 전국 사찰의 성보박물관 실무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성보박물관을 사찰의 공식 행정기구에 편입시키는 종법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키로 했다.

이는 비공식 기구라 행정력이 미치지 않았던 성보박물관에 대한 종단의 관리 감독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성보박물관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 건립중이거나 개관한 조계종 내 성보박물관은 22곳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장고, 전시 시설, 방법·방화 시스템 등 구체적 운영 계획과 예산 확

보 없이 건립되다 보니 개관 이후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실무자 회의에서는 성보존법 개정과 '성보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령' 설치를 통해 △성보박물관 설립 기준 및 절차 △종단의 역할(지원 관리) △박물관장 자격 및 임기 △학예연구원 자격 △성보박물관 역할 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내년 3월경 개최해 종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찰과 종단,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권영진 기자



포교회관 2007년까지 건립

포교사단 내년사업 발표 홈페이지 사이버포교도

포교사단이 포교회관 건립과 함께 사이버 포교에 나서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포교사단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포교회관 건립, 포교사단은

향후 포교 전략 거점으로서 포교와 관련한 연구, 수행, 행정, 교육 등의 중심 역할을 할 포교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포교사단은 이를 위해 내년 1월 포교회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금을 시작해 조계사 인근에 400여평 규모의 4층 건물을 매입할 방침이다.

포교센터 구축과 함께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포교도 추진한다. 포교사단은 이미 사이버 포교팀을 이미 구성해 준비에 들어갔

으며, 포교사이 메일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각 지단별로 사이버 포교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포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전개된다. 내년부터는 전국 6개 지역 단위로 3개월간 3월경 개최해 종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성보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사찰과 종단, 정부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한명우 기자

조계종 보관문서 7551건 DB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부장 원택)는 13일 문서고에 보관중인 93년까지의 보관문서 7551건을 1차 자료목록 DB화 했다.

종단의 기록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총무업무에 활용키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1차 DB화

작업결과 총무원 7254건, 교육원 133건, 포교원 164건 등 총 7551건이었으며, 이중 310건은 보존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조계종 총무부는 내년부터 94년 이후의 보관문서를 정리할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한-미안마 불자 친선행사 30일 양국 전통공연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

기가) 미안마선원과 함께 30일 오전 10시 서울 암사동 미안마선원에서 양국 전통공연을 갖는 등 한-미안마 불자 친선행사를 개최한다.

한명우 기자

관음종 내년 북한 지원 나선다

새해예산 42억 확정

관음종 중앙총회(의장 법륜)는 19일 제39차 정기중앙총회를 열고 새해 예산 42억4천776만원을 심의의 결정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6억원 이상 증액된 것이다. 관음종은 내년에 북한지원 사업 및 종교연수, 복지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으며 2002년이 승니분한신고 10년차가 되는 만큼 전국 말사 및 종단

스님들에 대한 승니분한신고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경숙 기자

총회의원 6월경 연수

조계종 총회장은 19일 총회사무처에서 총회위원장 지하, 부위원장 청화, 총무부과위원장 정우, 교육분과위원장 항적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총회의원연수를 6월경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총회의원연수 주제와 구체적인 일정을 내년

초 제153회 임시중앙총회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다시 논의키로 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상담개발원 특강

불교상담개발원이 20일 조계사 불교대학 2층 강의실과 찾집 '생각해보자'에서 상담원을 위한 특강과 무료 하루치진을 열었다.

자비의 전화 상담원과 후원자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는 '상담의 힘'을 주제로 한 남지심씨(우리는 선우 공동대표)의 특강과 함께 시낭송을 결정한 하루치진으로 진행됐다.

한명우 기자

대한불교 선교종 주최

경 신사년 12월 27일 부산경남지역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 축

다사다난했던 신사년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매년 이맘때면 우리들이 걸은 한해를 되돌아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실천 궁행하였는가를 자성하고 또 참회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염원을 담아 새 희망을 설계하여 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이 풍부하고 개인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시선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종 총무원에서는 창종이념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 실현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병고에 시달리는 장애인 가정 등 지원금 전달 법회를 하고자 하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마

음을 나누기 위하여 지금껏 년5회 모범환경미화원 포상법회를 행하여 왔으며, 금년부터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은 부산광역시(16개 구청) 및 경남 총무원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지원금 전달 대법연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선교종은 전 종도의 염원인 받는 불교에서 되돌아주는 불교로 환기본처함에 따라 이 시대 이 역사속에 불교인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재확인하여 한국불교의 중흥발전과 나아가 한국불교의 초석이 될 것을 기원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더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 ◇ 지원금 수령 대상자 : 부산광역시 (16개 구청) 및 경남 총무원(51명)
- ◇ 지원금 내역 : 1인당 30만원 및 불교성전, 단주 증정
- ◇ 일시 : 2001년 12월 27일(목) 오후 2시
- ◇ 장소 : 부산광역시청 회의실

대한불교 선교종 총무원장 류혜중 합장

총무원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3동 844-30번지 성광빌딩 2층 201호
전화 051)462-6181, 6652 핸드폰 016-840-6181 FAX 051)441-4022